

한국SW·ICT총연합회

우)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2길 38 (한강로2가) 전화)070-8278-5656

문서번호 : 제2017-001호 담당자 : 박진호 간사(010-2218-0298) 2017년 3월 18일

수 신 : 회장/원장/소장

참 조 : 관련 부서장

제 목 : 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 초강국 건설을 위한 “한국SW·ICT총연합회[가칭]” 창립총회 개최 및 참석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고 SW와 ICT 초강국 건설을 위해 SW·ICT 상용, 융합, 특화 기술 유관 산학 협·단체와의 정책, 기술, 판로, 수출, 네트워크 연합 교류협력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칭]한국SW·ICT총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3. 이에 본 행사가 성황리 개최 될 수 있도록 귀 기관 및 소속 회원사 대표/임직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1) 행 사 명 : “[가칭]한국SW·ICT총연합회” 창립총회
- 2) 일 시 : 2017년 3월 31일(금), 10:00 ~ 12:00
- 3)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
- 4) 참석대상 : ICT 관련 업계, 학계, 정계, 전문가 등 300명 이상
- 5) 주 관 : 한국SW·ICT총연합회
- 6) 공동주최 : 96개 협·단체 및 회원(명단 별첨)
- 7) 내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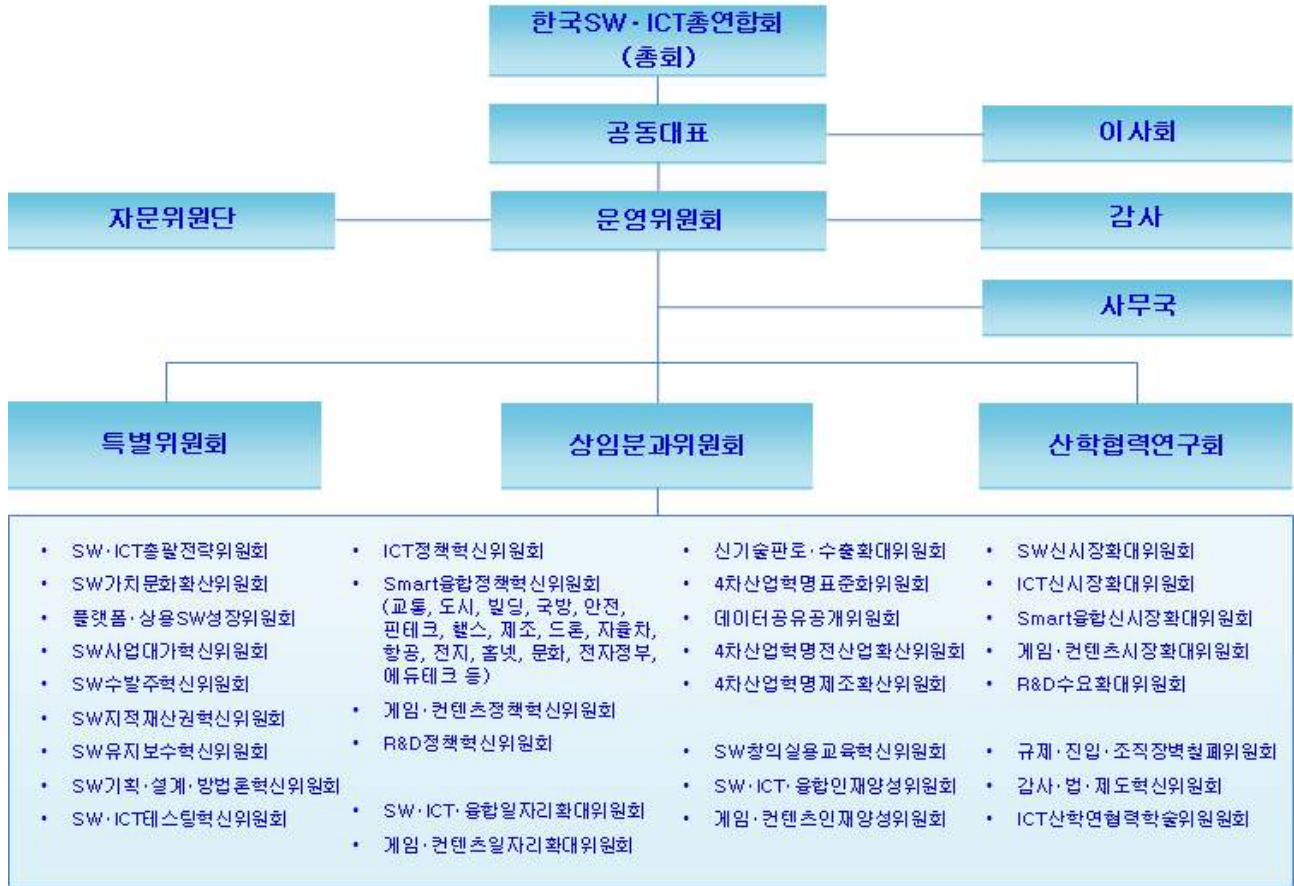
시 간	주 요 내 용
09:30~10:00	- 등록 및 접수
10:00~10:30	- 창립총회
10:30~12:00	- 창립기념 세미나

- 8) 신 청 : 가입 및 참석 신청은 [붙임 3] 작성 후 이메일 송부(~3월 29일(수)까지)
- 신청/문의 담당자 : 박진호 간사(gomalove@daum.net, 010-2218-0298)

- * 붙임 1. 조직 및 명단 1부.
2. 창립 취지문 1부.
3. 참석신청서(양식) 1부. 끝.

한국SW·ICT총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직인생략]

붙임 1. 조직(안) 및 명단



* 가입완료 단체명단(가나다순)

	단체명	대표자	no	단체명	대표자
1	IT여성기업인협회	장혜원	27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은현
2	SW융합협의회	유영환	28	한국스마트앱콘텐츠협동조합	성정화
3	SW테스팅기업포럼	이영석	29	한국어정보학회	최 성
4	경기정보산업협회	양재수	30	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	조현미
5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권기재	3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변광윤
6	대한산업경영학회	송교석	32	한국융합보안학회	김점구
7	미래IT강국전국연합	방기천	33	한국융합학회	이종연
8	빅데이터기업협의회	강용성	34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임재환
9	중소기업융합학회	이상호	35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정대울
10	지능정보산업협의회	이경일	36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11	한국ITS학회	이종철	37	한국전자출판물윤리위원회	손애경
12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강진모	38	한국전자출판학회	손애경
13	한국IT전문가협회	송관호	39	한국정보교육학회	김갑수
14	한국IT정책경영학회	김수영	40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홍기용
15	한국PMO협회	이영상	41	한국정보보호학회	이동훈
16	한국SW공학네트워크협회(K-SEN)	조경휘	42	한국정보시스템학회	문태수
17	한국SW테스팅협의회	박성호	43	한국정보처리학회	정영식
18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김환철	4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19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홍상희	45	한국정보통신학회	
20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노규성	46	한국중소출판협회	강창용
21	한국보안윤리학회	안성진	47	한국건설팅학회	정진택
22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이주연	48	한국컴퓨터교육학회	김현철
23	한국상용SW협회	조창제	49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한복동
24	한국소셜미디어학회	박성호	50	한국포렌직학회	노명선
25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노규성	51	한국통신학회	조유제
2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현정			

* 가입준비/진행 단체명단(가나다순)

	단체명	대표자	no	단체명	대표자
52	CIO포럼	황주연	93	한국스마트도시협회	조근환
53	IT벤처포럼	박기오	94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김태환
54	K-SW 포럼	이형우	95	한국여성벤처협회	윤소라
55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장영민	96	한국음악컨텐츠산업협회	김창환
56	국방소프트웨어산학연합회	박찬규	97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성숙
57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98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58	벤처포럼	이형택	99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강신철
59	빌딩스마트협회	허인	100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정승렬
60	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정기오	101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이철규
6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최진우	102	한국자동차협회	성백진
62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	민경오	103	한국재난안전협회	진병문
63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전영하	104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64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원우	105	한국전자거래학회	김훈태
6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명기	106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강창용
66	차량IT융합산업협회	양인석	107	한국전자산업협회	조남성
67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최요철	108	한국전자진흥협회	신종균
68	한국3D프린팅협회	최진성	109	한국정보과학회	홍봉희
69	한국ICT융합네트워크	한순흥	110	한국정보관리협회	조석환
70	한국ICT융합협회	백양순	111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문송철
71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이형희	112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이상현
72	한국IT서비스학회	권순범	113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73	한국SW기술진흥협회	이단형	11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문창수
74	한국VR산업협회	윤경림	115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75	한국경영정보학회	황경태	116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안치영
76	한국과학기술융합협회	이철희	11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재문
77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정성일	118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한복수
78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왕재훈	11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박정호
79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중	120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김학송
80	한국드론협회	박관민	121	한국지리정보학회	이진덕
81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강희조	122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82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	한창수	123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오순기
83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철교	12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김효남
84	한국멀티미디어협회	이태화	125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	황창규
85	한국모바일게임협회		126	한국프로세스심사협회	이경환
86	한국모형항공협회	박찬덕	127	한국항공진흥협회	성일환
87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고진			
88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	김종식			
89	한국사물인터넷협회	이형희			
90	한국산업융합협회	최만범			
91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이재인			
92	한국센서학회	박효덕			

한국SW·ICT총연합회 창립 취지문

세계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시대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산·학·정이 민첩하게 연합하여 극도의 혁신경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ICBAM 기반의 플랫폼과 상용 SW기술 및 센서/통신/VR/AR/3D/드론/자율차/전지 ICT 기술이 리드를 하고, 제조, 교통, 도시, 빌딩, 교육, 안전 등 전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첨단 Smart 융합/특화 신기술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등 억만장자 10대기업은 대부분 SW 기업이며, 가장 유망한 직업도 SW직종입니다. 미국은 범국가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Maker 운동”을 전개하고 SW 체험 학습기반의 창의실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계간 통신과 지능적인 학습으로 Industry 4.0 제조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일본은 단순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HW 중심의 메모리, 휴대폰, 가전 등 ICT 제조 강국에 머무는 동안, 미독일 선진국은 HW의 부가 가치보다 10~20배가 높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플랫폼, 상용SW 핵심기술을 제조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시키면서 기술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CT산업은 2010년에 GDP의 26%를 차지할 만큼 성장해왔으나, 국가 ICT 경쟁력지수는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추락하다가 4차산업혁명 준비도 면에서 25위로 평가받았습니다. ICT 수출액도 2016년 1625달러로 전년 대비 6%가 감소했고, SW직종은 꿈이 없는 4D업종으로 전락했습니다.

SW·ICT 산업의 성장은 기업의 전문성, 우수인력과 기술, 저가격과 지식재산권 보장의 가치경제 시장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인재의 가치보장, 공정한 시장, 진입장벽과 규제 철폐 등의 생태계 구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신기술 축적, 내수 시장의 확대, 수출 전략화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9년 동안 중장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4대강사업, 자원개발사업, 허울좋은 문화융성, 창조경제 사업 등 한시성 대형 국책사업으로 SW·ICT 정책은 크게 후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자원빈국이지만, 국민은 부지런하고 도전적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SW·ICT를 리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SW&ICT 산업은 타 산업의 융합경쟁력의 핵심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선진화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청년의 일자리와 미래경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SW·ICT를 세계 3위로 다시 끌어올리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SW·ICT를 활용한 전 산업분야의 융합 혁신, 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거시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SW·ICT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략화 하고, 일관된 권한과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 부처로 쪼개진 SW·ICT정책 채널을 일원화하고, 더욱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착실히 전개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국가적 SW·ICT 거버넌스 조직이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한 SW·ICT 전 산업의 협단체와 학술단체 및 100만 회원 일동은 SW·ICT 뉴딜정책 전개를 통한 4차산업혁명 주도과 SW·ICT 초강국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SW·ICT총연합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SW·ICT총연합회’ 100만 회원 일동은 단결된 총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 부총리급 SW&ICT 독립부처와 청와대 디지털수석 신설 등의 주요 정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기술 진입장벽 제거와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 철폐, 창의실용의 교육혁명, 공공 대형 SW·ICT 뉴딜정책 추진, 4차산업혁명 확산 및 시장 확대, 가치기반 저가격과 지식재산권 보장의 생태계 혁신, 기술과 기술자 우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가경제부흥,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2017년 3월 2일

한국SW·ICT총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붙임 3. 참가 신청서

< 창립행사 참가신청서 > * 상기 개인정보는 행사 안내 및 긴급통지를 위한 것이며, 행사 후 폐기 및 파기됩니다.				
번호	단체명	성명	본소속명 (회사/기관명)	핸드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필요시 칸 및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신청 : 가입 및 참석 신청은 [붙임 3] 작성 후 이메일 송부(~3월 29일(수)까지)
 - 신청/문의 담당자 : 박진호 간사(gomalove@daum.net, 010-2218-0298)